

기 수	제3기(2023년)
기 간	'23.5.22.~5.26.
제출자	유 해 조

국외(일본)정책과제 훈련 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3기 중견리더과정」 2분임 국외정책과제 훈련 결과보고

I. 국외연수 개요

- (목적) 재난안전관리 선진국의 재난 대응체계 및 사례(벤치마킹) 연구를 통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지자체)의 대응 정책·업무추진 방향 개선 도모
- (기간/장소) '23. 5. 22(월) ~ 5. 26(금), 5일간 / 일본(나라, 오사카, 교토, 고베)
- (방문기관) 쓰나미&타카시오 스테이션, 교토시 재해볼란티어센터, 고베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오사카 위기관리실, 교토시 행정국 방재위기관리실
- (2분임) 총 6명

분임직위	소 속	성 명	소 속	직 급	비 고
분임장		경창현	강원도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서기·발표		윤승재	경기도 (포천시)	지방행정사무관	
분임원		백병욱	대구광역시	지방공업사무관	
분임원		한재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시설사무관	
분임원		유해조	충청남도 (아산시)	지방행정사무관	
분임원		문동구	경상남도 (합천군)	지방행정사무관	

Ⅱ. 국외연수 내용

□ 오사카시 쓰나미(TSUNAMI)&타카시오(たかしお) 스테이션

○ (방문기관 개요)

- 방문일시: 2023. 5. 22.(월) 15:00
- 주 소: 일본 오사카시 니시구 에노코지마 2-1-64



- 참석자: 20명(교육생 17, 교육원 운영 3)
- 방문목적
 - 해면보다 낮은 지대 도시인 오사카시의 지리적 특징 이해
 - 지리적 특징에 따른 쓰나미와 타카시오(たかしお, 해일)로 인한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오사카시의 대처 방안 습득
 -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 피해 대책 방법 및 지진, 해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 등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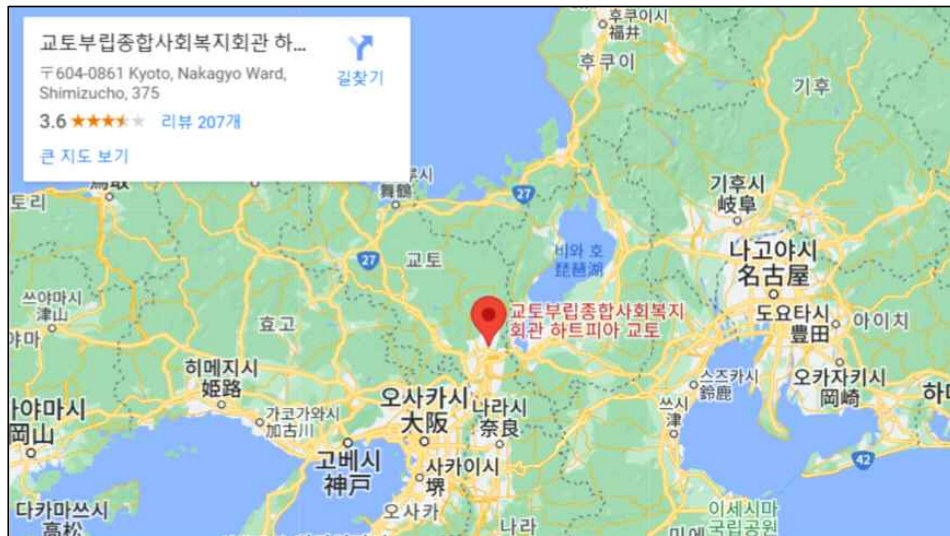
○ (주요 연수 내용)

- 쓰나미&타카시오(たかしお) 스테이션의 자연재해 대응하는 한글 프레젠테이션 연수
- 자연재해 쓰나미 피해상황을 실물로 재현한 현장을 관람
- 오사카시에 쓰나미 및 해일 발생 시 시간대별 내륙상륙 상황을 재현한 도시현황 지도를 통한
- 시민에게 자연재해의 경각심을 알리고 재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교육하는 스테이션의 역할 등의 이해

□ 교토시 재해볼란티어센터(kyoto City Disaster Volunter Center)

○ (방문기관 개요)

- 방문일시: 2023. 5. 23.(화) 14:00
- 주 소: 교토시 나카교구 카라스마 히가시이루 기요미즈초 375



- 참석자: 20명(교육생 17, 교육원 운영 3)
- 방문목적
 - 교토시 재해볼란티어센터의 역할과 어떠한 봉사를 하는지에 대한 조사
 - 센터의 구성원 및 시민참여 유도 방법 등 조사

○ (주요 연수 내용)

- 교토시 재해볼란티어센터의 역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연수
- 과거 발생한 재난에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을 기록한 사료(史料)등을 확인
- 예산(정부 80%, 시민기금 등 20%) 확보, 시민참여 방법 등에 대한 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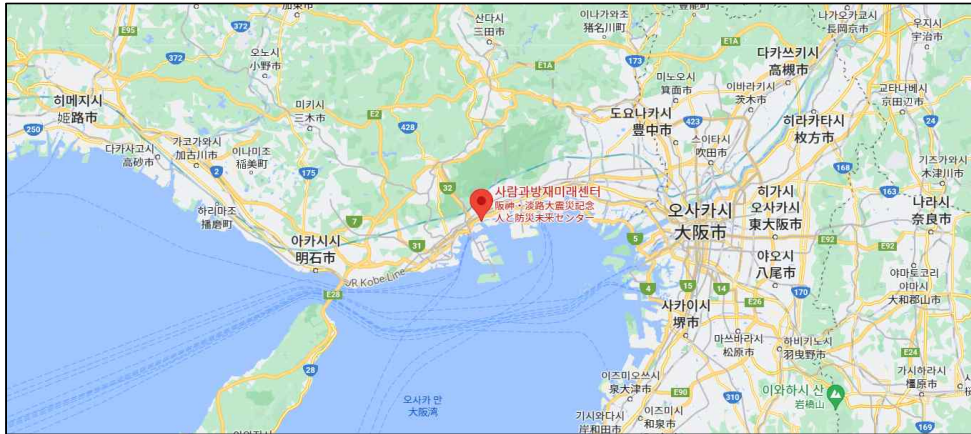


<2분임 연수 단체사진>

□ 고베시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 (방문기관 개요)

- 방문일시: 2023. 5. 24.(수) 11:00
- 주 소: 고베현 주오구 와키하마 카이간도리 1-5-2



- 참석자: 20명(교육생 17, 교육원 운영 3)
- 방문목적
 - 일본의 방재 미래센터의 역할과 우리들의 할 일 등을 조사
 - 재해 발생 후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동체에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연구
 - 대형 자연재해 발생 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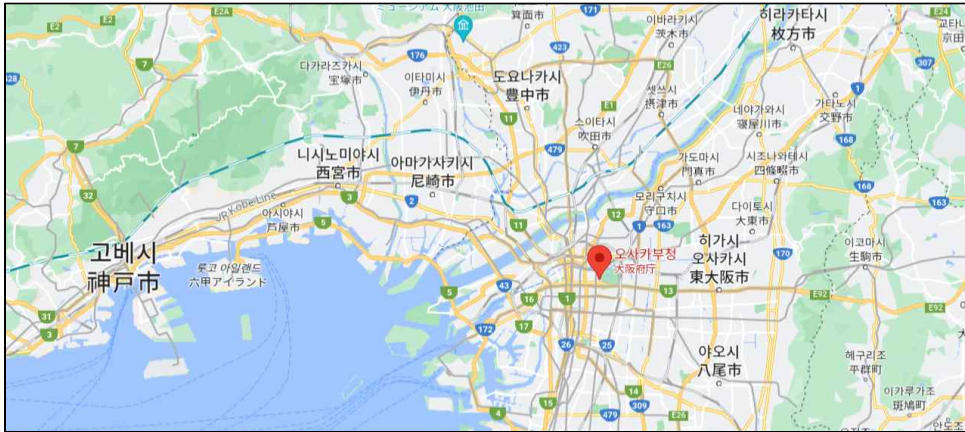
○ (주요 연수 내용)

- 대형 지진 및 쓰나미 영상 시청을 통한 재난의 위험성과 재난을 대비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의 필요성 연수
- 과거 발생한 다양한 재난을 기록한 사료(史料)등을 확인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각 부분별(민·관, 개인 등) 역할을 잘 숙지하여 행동하여야 함을 배움
- 지진이 발생한 직후의 폐허와 같은 거리를 재현한 센터 내 공간에서는 참혹한 상황을 보고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느낌

□ 오사카부 위기관리실(한국 기준 → 시·도 위기관리실)

○ (방문기관 개요)

- 방문일시: 2023. 5. 24.(수) 15:00
- 주 소: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2가



- 참석자: 20명(교육생 17, 교육원 운영 3)
- 방문목적
 - 일본의 제2의 도시 오사카부 위기관리실의 역할
 - 오사카부 자연재해에 관한 정책 조사·연구
 - 재해 대책 그룹의 업무 등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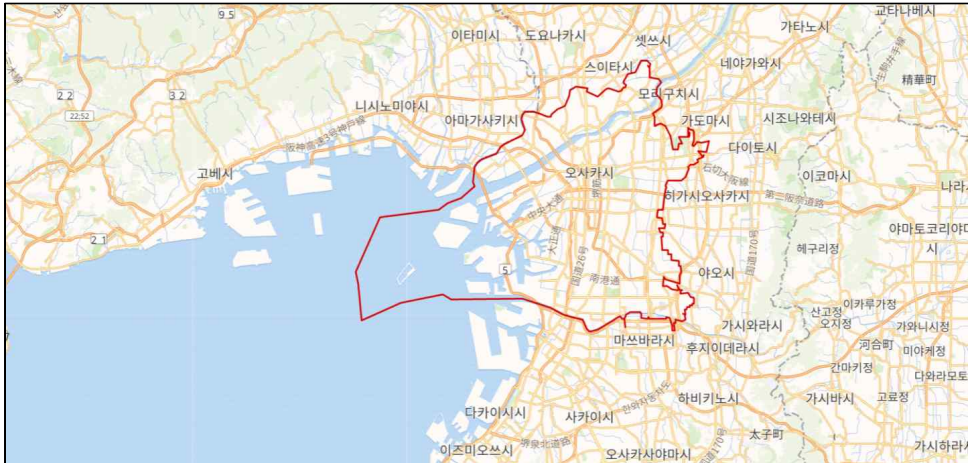
○ (주요 연수 내용)

- 오사카부의 자연재해에 관한 정책 설명(위기관리실 방재기획과)
 - 오사카의 지리적 특징 이해
 - 자연재해(태풍, 해일, 토사, 지진 등) 대응 정책 등 이해
- 재해 대책 그룹의 업무 프레젠테이션(위기관리실 재해대책과)
 - 오사카부의 평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조직 이해
 - 자연재해를 대비한 훈련 등 조사
- 오사카부 위기관리실 현장(구조 등) 실사
 - ※ 위기관리실 근무인력: 24시간 2교대(2명/12시간), 총 60명 근무

□ 교토시 행정국 방재위기관리실(한국 기준 → 시·군·구 위기관리실)

○ (방문기관 개요)

- 방문일시: 2023. 5. 25.(목) 10:00
- 주 소: 교토시 나카교구 우에혼노지마에마치 488



- 참석자: 20명(교육생 17, 교육원 운영 3)
- 방문목적
 - 오사카부 내 오사카시 위기관리실의 역할
 - 오사카시(지자체) 자연재해에 관한 정책 조사·연구 등

○ (주요 연수 내용)

- 오사카시의 자연재해 및 대응에 관한 정책 설명
 - 자연재해(태풍, 해일, 토사, 지진 등) 대응 정책 등 이해 등
- 오사카시 위기관리실 현장(구조 등) 실사
 - ※ 위기관리실 근무인력: 평상시 미 근무, 재난상황 시 24시간 근무 실시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경창현 / 강원도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태풍, 지진, 쓰나미 등 지질학적, 기상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재해방지 체험시설인 오사카 “쓰나미&타카시오 스테이션”, 고베시 “사람과 방재미래센터” 등과 오사카 “위기관리실”, 교토시 “행정국 방재위기 관리실” 등 재해를 총괄하는 상황실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부서·기관별 역할분담 등 지진대비 체계를 경청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음. 특히, “쓰나미&타카시오 스테이션”은 해일의 위험성을 알리는 각 세션별 다양한 구성,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방문객에게 전달하는 위험의 메시지가 인상 깊었음. 우리나라도 경주(‘16년), 포항(‘17년) 및 최근 동해지역의 잦아지는 지진 등 재난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한번 더 느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윤승재 / 경기도(포천시) / 지방행정사무관



개인적으로 13만에 다시 찾은 오사카!

당시만 해도 국가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각하여 이에 대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이번 연수는 재난으로부터 평소 어떠한 노력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배울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오사카 시립과학박물관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서 일본 어린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의식과 함께 개성 없이 촌스럽게 느껴지지만 무언의 규율을 느낄 수 있었던 교복문화와 안스러울 정도로 무거워보였던 책가방을 모두 두른 모습들,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닌 디지털카메라와 일회용 카메라로 추억을 담던 일본 청소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30여년전 나의 수학여행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우리 자녀들 세대 청소년들의 자유분방하고 스마트폰으로 개성을 표출하는 모습만을 지켜봐 오다 일본 청소년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물론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답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내가 5일 동안 보았던 일본 청소년들의 모습은 나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안겨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기에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서 기관 방문 때마다 한국어로 제작된 팸플렛이나 영상, 그리고 우리에게 제공된 번역된 자료들...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용 자료나 관광안내 지도 등은 외국어로 만들어 비치하고 있지만,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도 외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교육을 수료하고 현업에 복귀하게 되면 차근차근 챙겨보고 보완해 가는 것이 내가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지역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소명이라고나 할까?

백병욱 / 대구광역시 / 지방공업사무관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 사회의 노력은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개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느끼고 배웠으며,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 교육, 홍보, 안내 등 어디를 가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사회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나라인 것 같았다.

일본과는 과거사의 아픔이 있지만,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만큼은 일본의 체계를 배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 진정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재성 / 대전광역시(유성구) / 지방시설사무관



1995년 한신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지진 대책에 자신이 있던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재난이었습니다. 현재 도시는 말끔히 복구되어 당시의 참담한 모습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충격을 단지 상처로만 남기지 않고 철저히 기억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자연재난을 막을 수 없지만 연구를 통해 그것의 발생을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 피해는 줄일 수 있으며, 일본의 사례에서는 행정과 시민이 협력해야 더욱 촘촘한 재해 경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유해조 / 충청남도(아산시) / 지방행정사무관



재난이 많은 일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지방정부의 재난 대비 방안을 직접 현장을 방문 기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청취, 견학하면서 재난 대비에 적극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중앙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재난대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지방정부도 재난대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문동구 / 경상남도(합천군) / 지방행정사무관



일본의 대지진 발생 시 구조된 사람들의 구조자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은 70%가 자기 자신과 가족이고, 20%가 이웃 등 가까이 있던 사람, 구조기관 등 정부가 10%로 가장 적었다.

이 통계를 볼 때 대지진 등 재난 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인이나 정부에 기대기보다 재해 시 비상물품을 가정에 항상 비치하는 등 자신과 가정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 특이사항

- 재난 발생 시 가까운 재난 피난소 전봇대 안내판



IV. 첨부자료

1. 붙임 1 국외(일본)정책과제 훈련 기관방문 사진
2. 붙임 2 과학관 및 문화유적지 방문 사진
3. 붙임 3 기타 기관방문 참고자료



<고베시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생존자 전시장 글>

다음 재난이 오늘 일어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 지금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붙임 1

국외(일본)정책과제 훈련 기관방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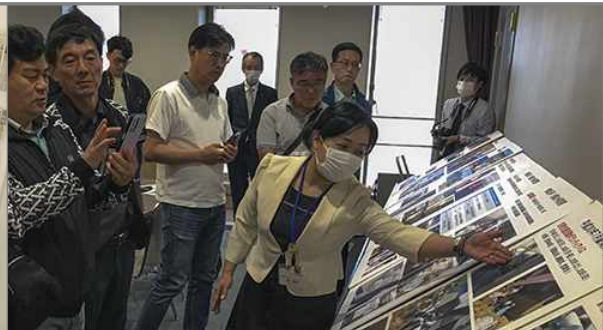
쓰나미&타카시오 스테이션 기관 프레젠테이션



재난 사고 관련 사료(史料) 관람



볼란티어센터 쓰나미 발생 시 피해지역 설명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자 역할 사료 설명



고베시 방재 미래센터 생존자 전시관(2분임조원)



방재 미래센터 지진 피해 사진(사료 전시장)



방재 미래센터 재해 피해 사진(사료 전시장)



오사카부(위기관리실) 기관 프레젠테이션



오사카부 위기관리실 현장 방문



교토시 위기관리실 현장 방문(Ⅰ)



교토시 위기관리실 현장 방문(Ⅱ)



교토시 위기관리실 현장 방문(Ⅲ)



오사카 시립과학관 전시실



오사카 시립과학관 전시 주기열표



오사카 시립과학관 외부 전경



오사카성



청수사 진입 관광 상가



동대사 사슴공원



일본 최대 목조건물 동대사



절벽 위의 누각으로 유명한 청수사

□ 일본의 쓰나미와 지진 발생 현황

일본의 쓰나미와 지진

플레이트 경계 근처를 진원으로 하는 해구형 지진은 일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수가 두드러진 피해가 없기에 방심하기 십상이나,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메이지 시대 이후 해구형 지진·쓰나미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